휴대전화 소지 금지와 관련한 학교 방침에 대한 안내

학부모님들께

어느덧 추운 겨울이 오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곧 자녀들이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되면 인격과 학업에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입시 경쟁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일탈과 포기라는 잘못된 상황에 쉽게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학습과 다른 점은 '학습은 평생 해야 하지만 교육은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는 시기를 놓치면 만회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북일고는 단체로 기숙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을 방해하는 기제나 행위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방식의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의 학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휴대전화 사용료는 부모님들께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학교 방침에 따라주시면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자녀들의 휴대전화를 아예 해지하거나 일시 정지시키고 졸업 후 다시 사용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사용이나 소지에 대한 학교 벌점 규정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탐지기를 구입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학생과 통학생들의 소지 금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최선의 방안은 학부모님과 학교가 협력해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방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청정구역을 만들려는 학교 방침에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 12. 20.

북 일 고 등 학 교 장